

# *Plutarch와 Antony and Cleopatra*

金 光 浩

## 1

Thomas North의 *Plutarch (The Lives of the Noble Grecians and Romans, 1579)*는 Shakespeare에게 희곡의 재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극예술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 입각하여 쓴 최초의 로마 사극인 *Julius Caesar* (1599-1600)는 그의 극작활동에서 영국 사극이라는 제한된 세계에서 탈피하여, 인간 영혼의 비극이라는 보다 더 심오한 세계를 지향케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Raphael Holinshed의 연대기(*The Chronicle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1587*)<sup>1)</sup>에서 소재를 구한 일련의 영국 사극에서 Shakespeare는 정치적, 애국적 결자에 입각하여 주로 영국의 국가 형성의 과정을 취급하였으며 따라서 영국 사극들은 국민극적인 성격을 띤, 순수한 사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Julius Caesar*도 표면적으로 보면 역사적, 정치적 문제를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극의 action에 대한 배경이 되고 있을 뿐이며, 극의 본질적 요소는 Brutus의 고귀하면서도 결함있는 인간성이 초래하는 비극이다.

*Julius Caesar*를 전환점으로 하여 저작활동의 비극시대로 접어든 Shakespeare는 사대(四大) 비극의 저작을 통하여 인간의 과오와 악에 의하여 야기되는 재앙을 추구하면서 고뇌하는 영혼이라는 주제를 전개하였다. 이제 그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끝마치고 이 탐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소재로 복귀하여, *Julius Caesar*에서 이미 그 일부를 이용한 바 있는 Plutarch의 Antonius 전기("The Life of Marcus Antonius")에 입각하여 *Antony and Cleopatra*를 쓰게 되었다. 이 극에서 취급되고 있는 이야기는 앞의 극이 끝나는 데서 그 이후의 Antony의 생애가 대상이 되고 주요 인물 중 일부가 재등장하고 있는 까닭에

1) 이 책의 초판은 1578년에 출판되었으나 Shakespeare가 이용한 것은 1587년에 나온 제2판이었다.

그 epic sequel 또는 historical sequel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으로 보면 Dowden이

The spiritual material dealt with by Shakespeare's imagination in the play of *Julius Caesar* lay wide apart from that which forms the centre of *Antony and Cleopatra*.<sup>2)</sup>

*Julius Caesar* and *Antony and Cleopatra* are related as works of art rather by points of contrast than by points of resemblance.<sup>3)</sup>

라고 평하였듯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소재의 사실(史實)에 대한 작가의 해석과 처리의 차이가 초래한 결과이다. 그리고 특히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Antony and Cleopatra*는 *Julius Caesar* 이래로 Shakespeare가 인간으로서나 극작가로서 성취한 정신적인 성장을 잘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이 두 편의 로마 사극의 저작 사이에 경과한 7~8년 동안에 Shakespeare는 사대 비극을 저작함으로써 그의 예술은 가장 심오한 경지에 이르고, 그의 천재는 가장 확실하고 성숙한 시기를 거치었다. *Antony and Cleopatra*도 극작가의 그러한 예술적 성숙의 엠연한 성취를 뒷받침 해주는 저작임은 Coleridge의 평가가 잘 말해주고 있다.

The highest praise, or rather form of praise, of this play which I can offer in my own mind is the doubt which its perusal always occasions in me, whether it is not in all exhibition of a giant power in its strength and vigour of maturity, a formidable rival of *Macbeth*, *Lear*, *Othello* and *Hamlet*.<sup>4)</sup>

*Antony*와 *Cleopatra*의 사랑은 고래로 매우 인기있는 문학 제재(題材)가 되어 왔으며 *Cleopatra*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져 오면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sup>5)</sup> North의 *Plutarch*는 Elizabeth 시대의 영국인들에게 그들을 더욱 더 유명한 존재로 만들었고 Shakespeare의 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취급한 두 편의 극이 존재하였다. 그 하나

2) Edward Dowden,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875), p. 279.

3) *Ibid.*, p. 307.

4) Terence Hawkes, ed., *Coleridge on Shakespear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p. 269.

5) Franklin M. Dickey, *Not Wisely but Too Well: Shakespeare's Love Tragedies* (1957; rep. San Marino, Calif: Huntington Library, 1966), pp. 144-176 참조.

가 Countess of Pembroke (Mary Sidney Herbert)의 *Antonius, a Tragedie*(1592)이며, 이것은 프랑스의 극작가 Robert Garnier의 *Marc Antoine* (1598)를 번역한 것이었다. 이 번역극은 Samuel Daniel을 자극하여 *Tragedie of Cleopatra* (1594)를 저작케 하였고, 이 극은 호평을 받아 1599, 1601, 1602, 1605년에 재판을 거듭하였으며 1607년에는 대폭적인 변경을 가한 개정판이 나왔다. 그 변경한 부분 일부에 Shakespeare의 극과 유사한 곳이 있어서 두 극의 영향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학자들의 의견이 구구하다.<sup>6)</sup> Shakespeare가 이들 두 극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에 의하여 그의 *Antony and Cleopatra*를 쓰도록 자극되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만 이들 극에 의지하였는지 결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 여러 학자들은 *Antony and Cleopatra*의 소재로 Plutarch의 *Antonius* 전기 이외에 많은 다른 보조적 소재를 추정하고, 상기한 두 극 외에 Chaucer의 *Legend of Good Women*, Actium 전투를 찬양한 Horace의 Ode, W.B.에 의하여 번역된 Appian의 *The Civil Wars* (1578), Daniel의 시 *Letter from Octavia to Marcus Antonius* (1599), North에 의하여 번역되어 그의 Plutarch 1603년 판에 수록된 Simon Goulart의 *The Life of Octavius Caesar Augustus* 등 많은 작품에 Shakespeare의 극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sup>7)</sup> 그러나 Shakespeare가 이런 작품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실제로 극의 소재로 이용하였는지, 또는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성에 대한 그 자신의 직관에 따라 써놓은 것이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설사 그것들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극의 극히 제한된 일부에 나오는 언어의 유사성,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에 관한 매우 사소한 몇 개의 암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Antony and Cleopatra*의 소재로서는 거

6) M.R. Ridley, ed., "Introduction," *Antony and Cleopatra*, in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54), pp. xxvii-xxx; Willard Farnham, *Shakespeare's Tragic Frontier: The World of his Final Traged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 Press, 1950), pp. 156-172 참조.

7) Kenneth Muir, *The Sources of Shakespeare's Plays* (London: Methuen, 1977), pp. 223-237; Geoffrey Bullough,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Vol. V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4), pp. 221-238, 247-248 참조.

의 전적으로 *Plutarch*의 Antonius 전기에 의지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Plutarch*는 Shakespeare가 극으로 개작하기 위하여 이용한 많은 소재 중에서 유일한 최고급 문학 작품이었으며, Antonius 전기는 그 생생하고도 세밀한 기술로 *Plutarch*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기가 되어 있다. 이런 우수한 소재를 극화하는데 있어서 Shakespeare는 그의 독창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대비극을 쓰는데 있어서는 그 소재가 그다지 우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이 변조함으로써 그의 상상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걸작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예컨데 *King Lear*에서 우리는 Shakespeare가 *Holinshed*에서 얻은 소재를 자유로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재에서 Cordelia는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도 살아 남아서 자기의 왕국을 탈환하고 만년의 부왕(父王)에게 효도를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Shakespeare는 이 국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 이미 비극적 격조를 너무 고양시켜 놓았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을 극에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8)</sup>. 그러나 *Plutarch*의 경우에는 변경하기 곤란한 역사적 사실과 소재 자체가 지니는 문학적 우수성 때문에 극작가의 자유는 속박되고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Shakespeare가 그의 천재적인 극작 기교로써, 어떻게 주어진 소재를 이용하고 변용하여 *Antony and Cleopatra*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극 예술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다.

If examinations were rightly conducted, to test your acquaintance with the methods by which great artists make great literature, and that understanding of them which is the true and capital and joyous reward of critical study, where can we find a drama more illustrative than this *Antony and Cleopatra*? For we have to our hand in North's *Plutarch* the very page that gave Shakespeare his material; the life of Marcus Antonius out of which he built this play.<sup>9)</sup>

8) Walter Raleigh, *Shakespeare* (London: Macmillan, 1950), p. 70 참조.

9) Arthur Quiller-Couch, *Cambridge Lectures* (London: J.M. Dent & Sons, 1943), p. 179.

*Antony and Cleopatra* 와 North의 *Plutarch*의 Antonius 전기를 비교해보면 우선 언어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유사한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극의 여러 곳에서 North의 힘차고 위엄 있는 산문의 어귀가 그대로 차용되어 무운시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극의 개시 이전에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는 세밀하고 길게 소재의 언어를 차용하고 있다.

그 첫째는 Modena 전투(43 B.C.)<sup>10)</sup>에서 패배한 후에 Antony가 겪은 고난에 대하여 언급한 Octavius Caesar의 대사이다.

*Leave thy lascivious wassails, When thou once  
Wast beaten from Modena, where thou slew'st  
Hirtius and Pansa, consuls, at thy heel  
Did famine follow, whom thou fought'st against  
(Though daintily brought up) with patience more  
Than savages could suffer: thou didst drink  
The stale of horses and the gilded puddle  
Which beasts would cough at: thy palate then did deign  
The roughest berry on the rudest hedge;  
Yea, like the stag when snow the pasture sheets,  
The barks of trees thou browsed. On the Alps  
It is reported thou didst eat strange flesh,  
Which some did die to look on; and all this  
It wounds thine honour that I speak it now  
Was borne so like a soldier that thy cheek  
So much as lanked not.*

(I. IV. 55-71)<sup>11)</sup>

이것을 North의 산문<sup>12)</sup>과 비교해 보면 양자 사이의 언어의 유사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탈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Shakespeare에 의하여 침

10) 이 논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의 연대는 W.W. Tarn and M.P. Charlesworth, *Octavian, Antony and Cleopatra* (C.U.P., 1965)에 따름.

11) 이 논문에서 극의 막 장 헌수와 text의 인용은 John Dover Wilson, ed., *Antony and Cleopatra*, in the *New Cambridge Shakespeare Edition* (C.U.P., 1950)에 의함.

12) T.J.B. Spencer, ed., "The Life of Marcus Antonius," *Shakespeare's Plutarch: The Lives of Julius Caesar, Brutus, Marcus Antonius, and Coriolanus in the Translation of Sir Thomas North*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4), p. 192. 앞으로 Antonius 전기의 헌수와 text의 인용은 이 판에 따름.

가되었다. 극작가는 이 가필에 의하여 전제적인 인상을 바꾸어 놓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Antony가 겪은 곤경은 더욱 심화되어 그것을 극복해낸 그의 인내력은 초인간적인 것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우리 눈 앞에 생생하게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Antony의 그런 옛날의 극기적 기질이 이집트에서의 지금의 그의 나약한 생활과 대조되고 있으며, 또 이 대사가 그의 경쟁자인 Octavius의 입을 통하여 말해짐으로써 높은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하나의 예는 Cydnus 강에서 Antony가 처음으로 Cleopatra를 만나는 (41 B.C.) 장면의 서술인데 이 대사는 그 아름다운 묘사로 이극 뿐만 아니라 Shakespeare의 전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귀절의 하나이다.

The barge she sat in, like a *furnish'd throne*  
*Burned* on the water: the poop was *beaten gold*;  
 Purple the sails, and *so perfumed that*  
*The winds were love-sick* with them; the oars were silver,  
 Which to the tune of flutes kept stroke and made  
*The water which they beat to follow faster*,  
*As amorous of their strokes*. For her own person,  
*It beggared all description*, she did lie  
 In her pavilion, cloth-of-gold, of tissue,  
*O'er-picturing* that Venus where we see  
*The fancy outwork nature*: on each side her  
 Stood pretty dimpled boys, like *smiling Cupids*,  
 With *divers-coloured fans*, whose wind did seem  
*To glow the delicate cheeks which they did cool*,  
*And what they undid did.....*  
 Her gentle women, like the Nereides,  
 So many mermaids, *tended her i'th'eyes*,  
 And *made their bending adornings*: at the helm  
 A seeming mermaid steers: the *silken tackle*  
*Swell with the touches of those flower-soft hands*,  
 That *yarely* frame the office. From the barge  
 A *strange invisible* perfume hits the sense  
 Of the adjacent wharfs. The city cast  
 Her people out upon her; and Antony,  
 Enthroned i'th'market-place, did sit alone,  
*Whistling to th'air; but for vacancy*,  
 Had gone to gaze on Cleopatra too,  
 And made a gap in nature.....

Upon her landing, Antony sent to her,  
 Invited her to supper: she replied,  
 It should be better he became her guest;  
 Which she entreated: our courteous Antony,  
 Whom ne'er the word of 'No' woman heard speak.  
 Being harbored ten times o'er, goes to the feast,  
 And, for his ordinary, pays his heart  
 For what his eyes eat only, (II. ii, 191-226)

이 화려한 대사를 그 바탕이 된 North의 산문<sup>13)</sup>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도 극작가는 소재의 용어를 거의 쓰어적으로 따르고, 또 그 이미지를 시종 차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North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이탈릭체로 표시된 부분을 세로이 첨가함으로써 본래의 아름다운 경경은 생생함과 화려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극작가의 상상은 무생물에까지 투사되어 Cleopatra와 그녀의 배에서 풍겨나오는 사랑의 매력에 매혹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바람과 파도까지도 사랑에 도취하고, Venus 보다도 몇 배나 아름다운 Cleopatra의 모습은 공기마저도 보려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매혹적이다.

He...adds the description of the sails and the oars, 'metaphysical' hyperboles which 'diffuse a tone of luxury and sensuousness throughout the passage'; and in these additions—the successive elements—the winds, the water, the air—are represented all as succumbing to the enchantment of love which breathes from the great Queen and her burning barge; and by this varied return on a single motive North's inconsequential panorama is given an organic unity.<sup>14)</sup>

Shakespeare는 극에서 이 대사를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인 Enobarbus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Antony가 Cleopatra를 버리고 Octavia와 결혼하기로 동의한 직후에 이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높은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위에서 든 예 이외로도 극작가가 North의 산문을 상당히 세밀하게 따르고 있는 부분은 많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곳에서 언어의 유사성을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언자의 Antony에 대한 충고(II. iii. 19-24: pp. 215-216)<sup>15)</sup>

13) *Ibid.*, pp. 201-202.

14) Kenneth Muir, *op. cit.*, pp. 222-223.

15) 팔호 속에 표시한 번수는 "Life of Antonius," *ed. cit.*에 나오는 해당 부분의 번수임.

- Pompey에게 제의된 강화조건(II. vi. 34-37: p. 214)  
 Antony가 Cleopatra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영토를 분배해준데 대하여 분개하는 Octavius의 대사(III. vi. 1-16: p. 242)  
 Octavius에 대한 Antony의 불평과 Octavius의 반박(III. vi. 24-37: p. 244)  
 Antony 휘하에 집결한 아시아의 왕들(III. vi. 68-76: p. 250)  
 Antony에게 육전을 권고하는 병사의 진언(III. vii. 61-66: p. 255)  
 Antony가 Thidias를 매질하여 쫓아보내면서 전하는 Octavius에 대한 힐난(III. xiii. 140-151: p. 271)  
 Antony의 결투 제의에 대한 Octavius의 회답(IV. i. 5-7: p. 273)  
 Antony가 Cleopatra에게 말하는 최후의 대사(IV. xv. 51-58: pp. 280-281)  
 Cleopatra에게 Octavius의 계획을 알려주는 Dolabella의 대사(v. ii. 199-203: pp. 289-290)  
 Cleopatra가 자살한 직후 병사와 Charmian 사이의 대화(V. ii. 199-203: p. 292)

위에 열거한 예들에서 North의 언어에 대한 Shakespeare의 집착도는 매우 큰 것이기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복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작가는 언제나 그때의 극적 상황에 맞추어 일부를 수정하고, 또 그 자신의 어귀를 첨가하여 빌려온 전체에 생기를 더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Antony가 죽기 전에 Cleopatra에게 말하는 대사 중 최후의 부분은 이 극 전체를 통하여 소재의 언어를 가장 충실하게 촉어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곳이다.

The miserable change now at my end  
 Lament nor sorrow at; but please your thoughts  
 In feeding them with those my former fortunes  
 Wherein I lived...the greatest prince o'th'world,  
 The noblest...and do now not basely die,  
 Not cowardly *put off my helmet to*  
*My countrymen*...a Roman by a Roman  
 Valiantly vanquished.

(IV. xv. 51-58)

이 대사를 North의 산문<sup>16)</sup>과 비교해보면 극작가는 소재의 언어를 매우 충실하게 복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이 텔릭체로 표시한 부분을 첨가함으로써, 그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대사 전체에 생기와 기품을 주고, 패배의 쓴 잔을 들고 죽어가는 무인 Antony의 최후를 우리 눈 앞에 약여(躍如)하게 부각시켜

16) *Ibid.*, pp. 280-281.

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극의 언어에 있어서 극작가의 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크기는 하지마는, North의 *Plutarch*에서 차용한 부분은 그 길이나 빈도수에 있어서, 다른 로마 사극, *Coriolanus*의 경우나, 심지어 *Julius Caesar*의 경우보다도 적은 편이다. 극에서 소재의 언어에 대한 의존도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증대되고 후반부에 있어서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극에서 *Plutarch*의 언어와 유사한 곳은 세밀하게 변조된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제 5막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전체 446행에 대하여 고작 57행, 즉 8분의 1을 조금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다.<sup>17)</sup> 하여간 이 극에서 North의 묘사를 길게 차용한 부분은 극히 적으며, 대개의 경우 짧은 몇개의 어구나 문장을, 그것도 별로 중요치 않은 대사 속에서 채택하는데 그치고 있다.

### 3

Shakespeare는 이 극에서 소재의 산문이 제공해주는 표현을 빈번히 보다 생기 있는 시적 대화로 꾸며놓음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곳에서만은 그의 비상한 표현력으로도 원래의 묘사에 미치지 못하는 변용에 머물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sup>18)</sup>. North의 *Plutarch*에서 Antony의 최후 전날 밤 중에 그의 수호신인 Hercules가 그를 버리고 떠나는 경위를 서술한 부분<sup>19)</sup>은 불안한 예감과 불길한 전조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잘 묘사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을 Shakespeare는 극 속에 도입하여 무대 아래에서 오보에를 울리게 하고 위병들로 하여금 그 음악의 의미를 논하게 하고 있으나<sup>20)</sup>, 원문이 지니고 있는, 불안스럽고 두려운 분위기를 충분히 재현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 Cleopatra의 죽음 직후의 상황을 서술한 장면에서도 극은 *Plutarch*의 묘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극과 소재의 양쪽에서 인용

17) M. W. MacCallum, *Shakespeare's Roman Plays and their Background*(1910; rep. London: Macmillan, 1967), p. 323 참조.

18) Raleigh, *op. cit.*, pp. 71-72 참조.

19) "Life of Antonius," pp. 274-275.

20) IV. iii. 12-24 참조.

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Her death was very sudden. For those whom Caesar sent unto her ran thither in all haste possible, and found the soldiers standing at the gate, mistrusting nothing, nor understanding of her death. But when they had opened the doors they found Cleopatra stark dead laid upon a bed of gold, attired and arrayed in her royal robes, and one of her two women, which was called Iras, dead at her feet; and her other woman called Charmion half dead and trembling, trimming the diadem which Cleopatra ware upon her dead. One of the soldiers, seeing her, angrily said unto her:

'Is that well done, Charmion?'

'Very well,' said she again, 'and meet for a princess descended from the race of so many noble kings.'

She said no more, but fell down dead hard by the bed.<sup>21)</sup>

*Charmian* Your crown's awry,

I'll mend it, and then play—

*Enter the Guard, rustling in*

1 *Guard*. Where's the queen?

*Charmian*. Speak softly, wake her not.

1 *Guard*. Caesar hath sent—

*Charmian*. Too slow a messenger

..... [applies an asp]

1 *Guard*. What work is here! Charmian, is this well done?

*Charmian*. It is well done, and fitting for a princess

Descended of so many royal kings.

Ah soldier? [Charmian dies]

.....  
1 *Guard*. O Caesar,

This Charmian lived but now, she stood and spake:

I found her trimming up the diadem

On her dead mistress; tremblingly she stood,

And on the sudden dropped.

(V. ii. 317-328, 339-343)

위의 인용에서 국의 대화는 그것만 단독으로 읽어보면 매우 훌륭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Plutarch의 묘사와 비교해보면, 여러곳에서 국은 소재의 언어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품위와 위엄을 겸비하고 있는 Plutarch의 탁월한 묘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1) "Life of Antonius," pp. 291-292.

Here the drama falls short; perhaps because so much of the effect of the narrative depends on those moving little touches of description—the unconscious sentries, trembling handmaiden—which must perforce be omitted in the drama, or expressed in a more trivial and coarser fashion by the gestures of the players.<sup>22)</sup>

그러나 이러한 극의 결함은 공정하게 말해서 Shakespeare의 표현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는, 그의 천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극예술이 지니는 불가피한 제약성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극을 읽는 독자에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을 무대에서 상연할 때에는 배우의 적절한 연기가 따른다면 *Plutarch*의 묘사가 전하고 있는 분위기를 상당한 정도로까지 재생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두 곳을 제외하면 Shakespeare는 언제나 North의 산문을 보다 더 극적이고 생기있는 시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Ridley는

When all is said, the peculiar glory of this play is not in its dramatic quality at all. It is in its poetry. It is full...of phrases in Shakespeare's best later manner...which would startle us if we were not aware of their inevitable rightness before we have time to be startled.<sup>23)</sup>

라고 말하였지만, 이 극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감동적인 극시는 우리들이 *Antony and Cleopatra*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그리고 Shakespeare의 상상력은 때때로 North의 훌륭한 산문에 의하여 불붙여지기는 하였지만은 극에 나오는 시 중에서 특히 탁월한 것들의 대부분은, North의 언어에 거의 힘입은 바 없이 극작가 자신에 의하여 참조된 것이다.

이 극에 나오는 시는 Shakespeare의 초기극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서정시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이 극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주제를 다룬 *Romeo and Juliet*에서는 화려한 서정시가 과다하게 범滥하여 빈번히 극의 내용과 격리된 장식적인 시가 삽입되어 있어서 시 자체로는 아름다워도, 엄격하게 말해서 극의 대화에는 적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시는 애인들의 정열처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미숙한 젊은 이의 시이

22) Raleigh, *op. cit.*, p. 72.

23) M.R. Ridley, *Shakespeare's plays: A Commentary* (London: J.M. Dent & Sons, 1937), p. 192.

다. 이에 반하여 *Antony and Cleopatra*의 시는 그 주인공들을 치배하는 정열처럼 성숙한 어른의 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구상화되고 육감적인 시이다. Cleopatra의 배에 대한 화려한 묘사 하나 만을 제외하면 이극에 나오는 시는 과장이나 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일상 사용하는 평범한 구어 속에 강렬한 감정과 심오한 의미가 함께 충만되어 있는, 정말로 극적인 시이다.

이런 힘찬 극시에 의하여 Shakespeare는 이극에서 모든 색조의 극적 표현을 자유자재로 성취하고 있으며, 각 등장 인물에게 각기 그의 역할에 적합한 대사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리하여 극 속에서 Octavius가 말하는 어귀는 Antony가 말하는 어귀와 다르며, Cleopatra와 Octavia의 대사는 서로 대치할 수 없을 만큼 각기 개성적이다. 이렇듯 Shakespeare의 예술이 이극에서 이룩해 놓은 표현의 힘과 넓이와 아름다움은 높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Antony and Cleopatra* is a work of the most magnificent poetry—boldness in the use of words, startling imagery, imagination penetrating into the recesses of the human soul, unequaled variety of emotions, and a texture so rich that the play is like a gorgeous tapestry.<sup>24)</sup>

이렇게 탁월한 시는 또한 극의 내용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어서, 극에서 독립하여 그 자체 만으로는 거의 존재 불가능하고, 극의 문맥과 유리되면 그 힘을 대부분 상실하고 말지만, 극 속에서는 충격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Cleopatra의 최후의 대사

Dost thou not see my baby at my breast,  
That sucks the nurse asleep?

(V. ii. 308-309)

는 극의 문맥을 떠나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한가로운 어머니의 예사로운 말로 들릴 뿐, 우리에게 아무런 시적인 감흥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사가 여왕의 마지막 성장을 갖추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던 젖가슴에 독사를 갖다대고 있는 Cleopatra의 입을 통하여 말해질 때, 이 짧은 대사는 혼연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마력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 것이다.

24) Hardin Craig, ed.,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Chicago: Scott, Foresman, 1951), p. 1072.

## 4

*Antony and Cleopatra* 와 *Plutarch* 의 Antonius 전기의 풀롯을 비교하여 보면 놀라우리만치 유사하며, Shakespeare 는 *Julius Caesar* 의 경우 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소재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ony 의 생애 중 최후 10년간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거의 전부 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에 포함된 많은 역사의 세목들, 사소한 사건이나 에피소우드가 변화되지 않은 채 극 속에 흡수되고 있다<sup>25)</sup>.

아리하여 극의 풀롯 구성에 있어서 극작가의 소재 의존은 보기 드물게 세밀하고 충실하기는 하지마는, 주의깊게 검토해보면 Shakespeare 는 소재에서 차용한 세목에 그 자신의 예술적 기교를 가미함으로써 극 속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Antonius 전기에는 주인공의 생애의 대소 사건들이 보기 드물게 생생한 필치로 서술되고 있어서 *Plutarch* 중 가장 뛰어난 전기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거기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사실들이 개별적으로는 탁월하게 처리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기적인 통합체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여서 사건의 연속과 등장인물의 움직임에 필연성이 결여되었다. 소재가 지니는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극이 필요로 하는 통일과 집중을 성취하기 위하여 Shakespeare 는 소재에서 빌려온 세목들을 정리하여 교묘하게 배열하고 요긴한 곳에서 사건의 순서와 연속에 변화를 가하며, 또 필요한 곳에서는 그 자신이 자유로이 창조한 사건을 첨가하기까지 하고 있다.

Antony에게 Octavius 의 곁에서 멀리 떠나라고 말하는 예언자의 충고와, Octavius 와의 불운한 스포츠에 관한 Antony 의 언급은 *Plutarch* 에서는 Pompey 와의 강화회담이 성립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을 때 일어난 사실인데, 극에서는 이것을 강화회담 이전, Antony 가 로마에 도착한 당일 Octavius 와 화해하고 Octavia 와의 정략결혼에 합의한 직후로 옮겨 놓았다<sup>26)</sup>. 이렇게 Antony 의 운명의 중요한 전환점에 이

25) 극 속에 도입된 역사적 세목들의 목록에 대하여는 MacCullum, *op. cit.*, pp. 325-327 참조.

26) Cf. II. iii. 10-38 and "Life of Antonius," pp. 215-216.

사건을 앞당겨 놓음으로써 Antony 와 Octavius 의 관계는 속명적으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예견케하고 있다. 그리고 극에서 Antony 는 Octavia 와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앞으로 착실한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한 직후인데도<sup>27)</sup> 예언자의 충고를 듣자

I will to Egypt:

And though I make this marriage for my peace,  
I'th'East my pleasure lies.

(II. iii. 38-40)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Shakespeare 의 순전한 창작인데, 이 대사에 의하여 우리는 Antony 의 성격의 불성실성에 주목하기에 앞서 그의 Cleopatra 와의 불가분의 깊은 관계와, 이 시점에서 그가 겪고 있는 심적 갈등을 확인하고 그의 전도에 닥쳐올 비극적 운명의 불가피성을 예견하게 된다.

극에서 Antony 는 위에 인용한 독백 뒤에 곧 Ventidius에게 출전을 명령하여 Parthia 군의 진격을 저지케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Plutarch 에서 Pompey 와의 강화조약 후에 있었던 사실을 앞당겨 놓은 것이다<sup>28)</sup> 이 변용은 Ventidius 의 승리를 Antony 의 아테네 도착 이전으로 앞당겨놓기 위한 예비조처인데 이 점에 대하여는 후에 다시 언급하겠다.

다시 Shakespeare 는 Actium 해전에 뒤이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Plutarch 에서 차용해 온 세목들을 적절히 재배치함으로써 소재에 서보다도 더 강한 극적 효과를 가지게 하고 극의 갈등을 심화시켜 Antony 에게 닥쳐오는 치명적 패배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성취하고 있다.

Antony 가 하인들에게 배포는 예수에 찬 작별의 연회와 그의 수호신인 Hercules 의 떠남은 소재에서는 Alexandria 에서의 최후의 육전(陸戰) 이 있었던 날 밤에 일어났는데, 극에서는 그 전야로 앞당겨지고 있다<sup>29)</sup>. 또 Enobarbus 의 도주는 소재에서 Actium 해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극에서는 최후의 육전 바로 전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는 Antony 의 하인들과의 작별의 연회 때에도 아직 Antony 곁에 머물고 있으나 다음

27) II. iii. 4-7 참조.

28) Cf. II. iii. 40-42 and "Life of Anlonius," p. 215.

29) Cf. IV. ii. 9-45; IV. iii. 12-24 and "Life of Antonius," pp. 273-274; pp. 274-275.

날 아침 출전할 때에는 이미 도주하여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sup>30)</sup> 그는 소재에서는 거의 이름 뿐인 인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지만 극에서는 빈번히 chorus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 Antony의 최후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러한 역할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도주를 극의 이 시점에 갖다놓은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또 극에서 Enobarbus는 Antony의 가장 충실한 부하로서 시종 그의 측근에서 충성을 바쳐왔는데, 그의 봉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되는 때에 배반케 함으로써 최후의 파국에 앞선 Antony의 고립을 강조하고 그의 패배의 비극성에 신랄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아울러 성취하고 있는 것은 Shakespeare의 놀라운 극작 기교라고 아니할 수 없다. Enobarbus는 소재에서 적진으로 탈주한 후 곧 학질로 죽었다. Shakespeare는 소재에서처럼 Antony로 하여금 그의 소지품을 보내어주게 하는데에 더하여 장차 다시 주인을 바꾸게 되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써 보내게 하고 부하의 배반을 자기의 불운의 탓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Antony의 관인대도한 성격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sup>31)</sup>. 또 Enobarbus도 Antony의 그러한 관대한 대처에 깊이 감격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비탄으로 죽게 되어 있어서<sup>32)</sup> 그의 최후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비극이 되어 있다.

*Plutarch*에 의하면 Actium 해전에 앞서 Antony 쪽에 여러가지의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으며 그 중 하나가 Cleopatra의 기함 Antoniad호에 새비가 집을 지었다는 것이었다. Shakespeare는 이 흥조 하나만을 채택하고 이것을 소재에서와는 다르게 Alexandria에서의 최후의 해전 바로 앞에 도입해 놓고 있다.<sup>33)</sup> 이 변용은 최후의 결전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Antony의 전도에 불길한 암영을 던져주고, 그의 운명에 곧 닥쳐올 죽명적 파멸을 암시해주는 극적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

*Antony and Cleopatra*의 풀롯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두 주인공 사이의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에 극의 흥미가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hakespeare는 소재가 제공하는 많은 사소한 사건과 에피소우드를 대폭적으로 극에 도입하고는 있으나 그 전부를 채택할 수는 없었으며

30) Cf. IV. v. 6-10 and "Life of Antonius," p. 253.

31) IV. v. 12-17 참조.

32) IV. vi. 30-9, IV. viii. 7-23 참조.

33) Cf. IV. xii. 3-6 and "Life of Antonius," p. 249.

그 일부는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생략된 세목의 거의 전부가 주인공들의 관계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와 반면에 극에서는 소재가 제공해주는 세목에 많은 부분이 첨가되어 주인공들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Antony가 Alexandria에서 Cleopatra와 작별하고 이탈리아로 떠난 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소재의 이야기는 Antony에게 집중되고, 이 동안 Cleopatra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극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에 대하여 언급되며, 그녀를 관객의 관심 속에 불러들이고 있으며, 제 3막 제 1장 한 군데를 제외하고 그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 또 Antony가 자살한 후 소재의 이야기는 Cleopatra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극에서도 제 5막에서는 그녀가 action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녀의 대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Antony에게 언급되며 그의 위대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극작가는 더 나아가 극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에 남아있는 Cleopatra가 실제로 무대에 등장하는 세 장면을 창조하기까지 하여, Antony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의 그녀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녀의 성격의 새로운 면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극작가는 이 장면들을 사자의 왕래에 의하여 로마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고 있는데 이 수법은 그의 탁월한 극작 기교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제 1막 제 5장은 Cleopatra가 멀리 떨어져 있는 Antony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매일 Antony에게 사자를 보내며 그도 역시 편지와 보석을 보내어 오고 있어서 그들은 공간을 초월한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2막 제 5장에서는 그녀가 지난 날의 Antony 와의 즐거웠던 생활을 회상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때에 로마에서 온 사자를 반갑게 맞이 한다. 그러나 Antony가 Octavia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극도로 분노하여 사자에 대하여 거의 발광적인 행동을 취한다. 여기에서 그녀가 보이는 사랑과 질투, 슬픔과 분노의 교차 속에는 그녀의 변화무쌍한 성격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제 3막 제 3장은 제 2막 제 5장에서 Cleopatra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한 사자를 다시 불러들여 그녀가 Octavia의 용모에 대하여 질문하는 다

분히 희극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자가 보고하는 Octavia의 모습을 하나하나 희화화(戲畫化)하고 Antony가 멀지 않아 그녀를 버릴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Cleopatra에게서 우리는 사랑하면 질투도 하는 하나의 약한 여자의 본성을 인상깊게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실질적으로 제2막 제5장과 바로 연결되는 장면인데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어진 이 곳에 갖다놓고 있는 것은 Shakespeare의 특이한 극작기교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면에 대하여 Dover Wilson은

'This scene is practically continuous with 2.5'...But dramatically the interval has given Cleopatra time to cool down and above all to bethink her. The Messenger has also learnt wisdom, perhaps in private from Charmian<sup>34)</sup>

이라고 극적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제2막 제7장은 Misenum에 있는 Pompey의 군함 위에서 벌어지는 주연의 장면이고 제3막 제2장의 장소는 로마의 Octavius의 저택이다. 따라서 짐정(執政)들이 이 두 곳을 왕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의 경과가 필요하며, 따라서 시간적으로 보면 제3막 제3장은 제2막 제5장 직후 또는 늦어도 제2막 끝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제3막 제2장에는 최근에 결혼한 Antony와 Octavia가 다정한 부부로서 함께 아테네로 떠나는 광경이 취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관객 앞에 등장하는 Octavia의 참 모습에 뒤이어 Cleopatra가 상상하는 그녀의 모습을 대조시킴으로써 극적 효과를 크게 고양시킬 수가 있다. 시간적 모순에 대하여는 극이 중단 없이 무대에서 상연될 때 제2막과 제3막 사이에 있는 시일의 경과를 뚜렷하게 의식하는 관객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장면으로 격리하여 설정한 제2막 제5장과 제3막 제3장은 그 시간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는 용인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면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 합리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극적 효과를 더 중요시 하는 Shakespeare의 대담한 극작 기교의 일면을 본다.

Alexandria에서의 최후의 육전에 앞서 극작가는 다시 Cleopatra의 성격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장면(IV. vi)을 창조해놓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출전하는 Antony에게 Cleopatra가 손수 갑옷을 입혀주면서 다

---

34) Wilson, *op. cit.*, p. 182.

정스럽게 격려케 하고 Antony도 유쾌하고 자신만만하게 출전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행복한 애인처럼 행동케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Antony를 전송하면서 그의 위대성에 감동하면서도 오늘의 전투의 결과에 불안해 하는 Cleopatra의 모습을 부각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파국을 앞두고 이제 그녀가 참다운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려는 극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Shakespeare는 *Antony and Cleopatra*를 쓰면서 Plutarch에 기술된 세목들을 대규모로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의 전체 이야기의 틀롯도 소재에서 채택하고 있어서 국에 나오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한 그에 의하여 새로이 첨가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해도 괜연이 아니다. 이것은 국의 취급 대상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작가는 뚜렷한 사실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국에서 취급되고 있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Julius Caesar*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 이후의 Antony의 생애가 대상이 된다. *Julius Caesar*의 끝에서 극화되고 있듯이 Antony는 Philippi 전투에서 Brutus와 Cassius의 공화군을 격파하고 그들을 자살케 함으로써 Caesar의 암살에 대한 복수를 성취하였다(42B.C. 10월) 그 후 Antony는 희랍과 아시아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Taurus의 Cydnus 강에서 Cleopatra를 만나자(41B.C.) 그녀에게 매혹되어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그녀와 함께 Alexandria에 가서 주연과 환락으로 소일하면서 위급한 국사에는 계의치 않았다.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긴급한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들이 도착하는데 (40B.C.) 국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Antony와 Cleopatra의 자살(30B.C.)에 이르기까지 10년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국이 2년간에 걸친 역사적 사건을 취급한 *Julius Caesar*의 경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국작가에게 부과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Shakespeare는 Plutarch가 제공해주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맹대한 사실(史實)의 전부를 국 속에 흡수할 수는 없었으며 긴 역사적 전기를 한정된 시간에 무대에서 상연할 수 있는 국을 만들어내는 데서 오는 제약은 불가피하게 역사적 사건을 대폭적으로 압축하고, 또 그

일부를 생략하게 하였다. 극과 소재를 세밀히 대조하면서 극작가가 사실(史實)에 가한 변용의 양상을 조사해보면 많은 곳에서 그의 탁월한 극작기교가 가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lutarch*에 의하면 Antony에게 두 곳에서 온 사자들에 의하여 나쁜 소식이 전해졌는데(40B.C. 봄) 로마에서 전해진 첫째 소식은 그의 동생인 Lucius와 아내인 Fulvia가 서로 싸우고, 후에 화해하여 협력해서 Octavius Caesar에게 도전하였다가 패배하여 이탈리아에서 축출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소식은 Labienus가 지휘하는 Parthia 군이 Lydia와 Ionia 까지 침공해왔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에 젊은 Antony는 깊은 잠에서 깨어 난듯이 분기하여 Parthia 군의 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Phoenicia 까지 갔으나, Fulvia의 간청을 받아들여 200척의 배를 거느리고 이탈리아로 향하였다. 그 도상에서 Antony는 Fulvia가 Cleopatra에게서 자기를 떼어놓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그녀는 Antony를 만나러 오는 도중에 Sicyon에서 병사하였다<sup>35)</sup>.

극에서는 Fulvia와 Lucius의 반란, Parthia 군의 침공, Fulvia의 죽음이 로마와 Sicyon에서 온 사자들에 의하여 동시에 연속적으로 Antony에게 전하여진다. 더우기 *Plutarch*에서 Sextus Pompey의 위협은 Antony의 Alexandria 출발의 이유에 들어 있지 않았고 그에 의하여 야기된 위기는 나중에 Antony가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에 비로소 언급되고 있다<sup>36)</sup>. 극작가는 이렇게 서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묶고 Antony를 로마에 직행케 함으로써 극에 필요한 압축과 긴장을 동시에 성취하고 있다.

*Plutarch*에서 Antony를 Cleopatra 곁에서 떠나게 한 주동기는 Parthia 군의 위협이었다. 그러나 극에서 그는

Let Rome in Tiber melt, and the wide arch  
Of the ranged empire fall!...

(I. i. 33ff.)

라고 호언 할만큼 Cleopatra 와의 사랑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Antony가 그녀에게서 떠나게 되는 결심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보다 더 강

35) "Life of Antonius," pp. 207-209 참조.

36) *Ibid.*, p. 212.

력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극작가는 그에게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소식들이 동시에 전해지게 함으로써 그의 정신적 동요를 소재에서보다 더욱 심대하고 돌연한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극의 제1막 첫 장은 극의 상황 설명의 결작이며 Shakespeare의 놀라운 극작 기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많은 사실들이 경제적으로 집약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불과 62행 밖에 안되지만 이 속에 Antony의 타락과 방탕한 생활, Cleopatra의 매력, 정치적 정세, 극의 주요 주제로 전개될 Antony의 초월적인 사랑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있어서 관객의 흥분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극은 우선 주석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Demetrius와 Philo 사이에 교환되는 대화의 중간에서 시작됨으로써 극의 구조에 힘과 자극을 주고 있다. Philo는 극에 나와있지 않는, Demetrius의 말에 대답하고 있음이 분명한 대사로 Antony의 흘애(溺愛)를 설명하는데,

Nay, but this dotage of our general's  
O'erflows the measure:...

(I. i. 1. ff.)

라고 하는 그의 애매한 대사 속에는 자신의 말에 대한 어떤 은근한 부인, 합축된 상충이 내포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극적 대사가 되고 있다. 그의 대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Antony와 Cleopatra가 화려하게 등장하며, 로마 제국의 물리적 크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큰 그들의 사랑의 규모를 암시하는 데는 4행이 소요될 뿐이다.

*Cleopatra.* If it be love indeed, tell we how much.

*Antony.* There's beggary in the love that can be reckoned.

*Cleopatra.* I'll set a bourn how far to be beloved.

*Antony.* Then must thou needs find out new heaven, new earth.

(I. i. 14-17)

로마에서 온 사자의 등장에서도 Shakespeare의 탁월한 극작기교를 엿볼 수 있다. 다른 극작가이면 여기에서 아마 사자 자신으로 하여금 로마의 정세, Antony의 정치무대로의 부귀의 필요성을 말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극작가는 그런 기계적인 수법을 버리고 사자에게는 다만 반 행을 허락하고 있을 뿐이다.

News, my good lord, from Rome, (I.i. 18)

그 대신 Cleopatra의 대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하고 있음은 극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법이다.

Fulvia perchance is angry; or, who knows  
If the scarce-bearded Caesar have not sent  
His powerful mandate to you,....

(I. i. 20 ff.)

이렇게 함으로써 극의 경제적인 진행에 도움을 주며, 관객은 사자가 전할 소식과 함께 Cleopatra의 남을 놀리기 좋아하는 본성까지도 동시에 알게 된다.

The exposition is not a dry piece of narration as it would have been in the mouth of the neuter messenger; it is emotional and alive, informed by Cleopatra's temperament. Situation and character are revealed *together*.<sup>37)</sup>

*Plutarch*의 Antony는 이탈리아에 상륙한 뒤 Octavius와 화해하게 되고 그들은 Lepidus와 함께 로마 제국을 분할 통치하기로 하여 각각 로마 제국의 동쪽, 서쪽과 아프리카를 관할하기로 합의하였다(40B.C. 10월초)<sup>38)</sup> 그리고 이 협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과부가 된, Octavius의 누이 Octavia와 명목상 홀아비로 있는 Antony의 결혼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법률은 과부가 10개월 이내에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Octavius와 Antony가 로마로 가서 원로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결혼이 성사되었다(40B.C. 11월)<sup>39)</sup> 따라서 역사적으로 Antony의 이탈리아 상륙과 Octavia와의 결혼사이에는 약 1개월의 시일 경과가 있었다. 그러나 극에서는 Brundisium 협약과 결혼에 대한 원로원의 허가 획득은 생략되었다. Antony는 로마의 Lepidus의 저택에서 Octavius를 만나 서로 화해하고 Octavia와의 결혼에 합의한다. 그리고 당일 밤에 Octavius의 주선으로 Antony와 Octavia가 만나고 뒤이어 단시일 내에 그들의 혼사가 성립된다<sup>40)</sup>.

이 뒤에 있은 Misenum에서의 Pompey와의 화평(39B.C. 봄)과 그 축

37) Theodore Spencer, ed., "Introduction," *Antony and Cleopatra*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48), p. vi.

38) 이 협약이 있었던 장소를 *Plutarch*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Brundisium 이었다. See Tarn and Charlesworth, *op. cit.*, p. 56.

39) "Life of Antonius," pp. 209-212 참조.

40) II. ii. 15-153, II. iii. 1-9, II. iv. 2-3 참조.

하 연회는 사실(史實)대로 극 속에 도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재에서 보다 많이 확대되어 있기까지 한다<sup>41)</sup>. 이것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세계의 지도자들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려는 극적 의도에서 나온 조치이다.

이 이후의 Antony의 생애에 대하여는 많은 시간적 압축이 가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lutarch*의 Antony는 Pompey에 의한 위기가 해소되자 Ventidius를 출전시켜 Parthia 군의 진격을 지지케하고 그 자신은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Octavius와 협력하여 국사를 처리하였고, 이동안 그는 Octavia와 단란한 부부생활을 영위하여 첫 딸을 낳았다. 그러나 Antony는 Octavius의 곁에서는 언제나 그에게 암도당하여 위협을 느꼈고 또 예언자도 그에게서 멀리 떠나기를 권고하였으므로 아내와 딸을 다리고 희랍으로 떠났다(39B.C. 8월 또는 9월). 그리고 아테네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Ventidius의 두 번째 결전 승리의 소식을 들었다(39B.C., 38B.C.). 극에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예언자의 경고와 Ventidius에 대한 출전 지시가 Antony의 로마 도착 당일 밤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또 Antony는 Pompey와의 강화회담 후 로마로 귀환하여 그 조인을 마치자 곧 아테네로 떠난다<sup>42)</sup> 이리하여 Antony의 결혼과 아테네 행 사이에는 약 10개월의 시일이 단축되어 있으며 극에서 시일경과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집정들이 로마와 Misenum 사이를 왕래하는 데 소요되는 짧은 시일 뿐이다. 따라서 Antony와 Octavia에게는 *Plutarch*에서와 같이 딸을 낳을 만큼 오랜 시일에 걸친, 이탈리아에서의 부부생활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또 극에서는 Ventidius의 두번째 승리판이 취급되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Antony의 로마 출발 이전으로 앞당겨 놓여지고 있으며, Syria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Ventidius는 Antony보다 먼저 아테네에 도착하려고 전장을 떠난다<sup>43)</sup>. 이렇게 그의 승리를 앞당긴 것은 Antony의 Parthia 공략에의 직접 참가를 생략하고, 아테네 도착 이후의 그의 군사활동을 Octavius와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한 극적 필요에서 나온 조치임이 분명하다. 만일 Ventidius의 승리를 사실대로 Antony의 아테네 도착 이후에 갖다 놓았다면, 그의 부하가 성취한 승리와 그 자신의 Actium에서의 패배

41) Cf. II. vi; II. vii and "Life of Antonius," pp. 213-215.

42) III. ii. 2-4, 23-66; "Life of Antonius," pp. 215-219 참조.

43) III. i. 35-37 참조.

는 지나치게 설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 무인으로서의 Antony의 위대성은 도리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것이다.

*Plutarch*의 Antony는 Octavia와 아테네에서 두번째 딸을 낳을만큼 오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고, 비록 Parthia 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Ventidius가 가져다준 승리에 의하여 명성이 높아지고 야만국들에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면 중 그에게 전해진 어떤 보고에 둘시 분개하여 300척의 배를 거느리고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귀환하여 Tarentum에 상륙하였다(37B.C. 봄). 여기에서 Octavia는 중재에 나서기를 간청하여 Antony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때 그녀는 세번째 아이를 임신중이었다. 그녀는 간곡한 설득으로 Octavius를 감동시켜, 그로하여금 Tarentum으로 가서 Antony와 화해케 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에서는 Octavia가 중재에 나서기는 하나, 그녀 혼자 아테네를 떠나며, Antony의 이탈리아 행과 Octavia의 중재 성공은 배제되었다. 그리고 첫째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딸의 출생이나 셋째 아이의 임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sup>44)</sup>.

이 이후 국의 진행에는 대폭적인 사실(史實)의 생략이 뒤따르고 있다. *Plutarch*의 Antony는 Octavius와 화해한 후 아내와 아이들을 그에게 맡기고 Parthia를 공략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떠났다(37B.C. 봄). 그가 시리아 가까이까지 가자 오랜 세월 동안에 완전히 사라진듯이 보였던, Cleopatra에 대한 연정이 다시 불붙어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시리아로 불러오게 하여 많은 영토를 그녀에게 줌으로써 (37B.C. 가을) 로마인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Cleopatra를 일단 이집트로 돌려 보내고 (36B.C. 봄) Arabia와 Armenia에서 10만이 넘는 대군을 모아 Parthia 공략에 대비하면서 전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러나 Cleopatra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연정에 암도되어 적을 정복하는 대보다도 그녀 곁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었다. 이리하여 성급하게 겨울(36B.C.)에 전투를 개시하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승리에 가장 필요 한 중병기를 오히려 속전속결에 방해가 된다고 오판하여 뒤에 남겨둔채 개천하였다. 그는 18차의 소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격심한 기근과 질병, 그리고 적의 추격에 시달리는 연속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불명예스러운 퇴각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욱기 하루 빨리 Cleopatra 곁

---

44) Cf. III. iv and "Life of Antonius," pp. 218-221.

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른 나머지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켰다. 그는 소수의 부대만을 거느리고 시리아 해변 Sidon 근처에 있는 Blancbourg에 당도하여 Cleopatra가 오기를 거의 광적인 초조 속에서 고대한 끝에 그녀와 재회하였다. 후에 Antony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Parthia 공략 중에 잘 협력하지 않은 Armenia를 공격하여 (34B.C. 초) 정복한 후에 로마가 아닌 Alexandria로 개선함으로써 (34B.C. 가을) 로마인들의 분노를 샀다<sup>45)</sup>.

위에서 약술한 Antony의, Parthia와 Armenia 원정은 *Plutarch*의 *Antony* 전기의 약 5분의 1, 그리고 이극에서 취급된 그의 생애의 약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akespeare는 그것을 전부 생략하였다. 극에서는 나중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Antony의 부탁을 받은 Eros의 놀라움에 찬 대사

The gods withhold me!

Shall I do that which all the Parthian darts,  
Though enemy, lost aim and could not?

속에서 Antony의 Parthia 원정에 대한 완곡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Antony의 생애 중 가장 야심적인 사업의 하나이었고 또 그의 Cleopatra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는 이 원정을 생략한 Shakespeare의 극적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 점에 대하여는 MacCallum이 적절한 회답을 주고 있다.

The truth is that the whole management of the campaign detracts grievously the glamour of "absolute soldiership" with which he wishes us to view him. His silence in regard to it is thus a hint of one far-reaching and momentous change Shakespeare has made in the impression the story conveys, and that is in the character of Antony himself.<sup>46)</sup>

한편 *Plutarch*의 Octavius는 Antony가 아시아로 떠난 후 Pompey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를 패배시키고 (36B.C. 9월 3일)<sup>47)</sup> 또 같은 해에 Lepidus를 면직한 후에 감금함으로써 Antony와 Caesar 간의 불화는 심화되어 갔다. 이 사건들은 극에 도입되고는 있으나 Octavia의

45) "Life of Antonius," pp. 221-239 참조.

46) MacCallum, *op. cit.*, pp. 335-336.

47) 극에 언급되어 있는 그의 죽음은 그 다음 해에 일어났다. *Plutarch*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테네 출발의 직전과 직후에 언급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앞당겨 놓아  
지고 있다<sup>48)</sup>.

*Plutarch*에 의하면 로마에 머물고 있던 Octavia가 다시 악화된 남편  
과 동생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또 한번의 중재에 나서려 하자  
Octavius도 여기에 동의하였는데 이것은 Antony의 그녀에 대한 대접  
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에게 전쟁을 결 구실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로마를 출발하여 (35B.C. 3월)  
아테네까지 왔을 때 Antony로부터 거기에서 기다리라는 편지를 받았  
다. 이 때 그는 Parthia를 다시 공략할 준비에 분주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그가 아내에게로 영원히 돌아갈까 두려워 하는 Cleopatra가 갖은 술  
책을 부리자 그녀가 자살할까 염려한 Antony는 아내에 대한 약속을 어  
기고 Alexandria로 가버렸으므로, Octavia는 하는 수 없이 로마로 귀  
환하였다(35~34B.C. 겨울). 이 후에 Antony는 Parthia와 화평하고  
Octavius와의 전쟁 준비에 전념하였다. 한편 Octavia는 로마로 돌아온  
후 Antony의 집에서 나오라는 Octavius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편을 위  
해 계속하여 진력하였으므로 이런 고귀한 아내를 돌보지 않는 Antony  
는 로마인들의 미움을 샀다<sup>49)</sup>. 그들의 부부관계는 후에 Antony가 자기  
의 집에서 나가라고 Octavia에게 명령함으로써(32B.C. 5월 또는 6월)  
끝장났다<sup>50)</sup>. 그러나 Octavia는 Antony가 죽은 후에도 그들 사이에서  
난 딸들 뿐만 아니라, Fulvia와, 친지인 Cleopatra와의 사이에서 난  
Antony의 아이들까지도 맡아서 잘 양육하였다<sup>51)</sup>. 이렇게 *Plutarch*에  
서 Antony와 Octavia가 결혼 초기에는 두 딸까지 낳는 조용한 부부 생  
활을 하였고 마지막 파탄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이나 지속된 그들의 부  
부관계를 Shakespeare는 크게 압축하고 또 Octavia의 현신적인 봉사도  
대부분을 생략하였다. 극에서 그녀의 두번에 걸친 중재는 한번으로 혼  
합되고 그들의 부부관계도 아테네에서의 작별로 끝장난다. 그리고  
Antony는

Have I my pillow left unpressed in Rome,  
Forborne the getting of a lawful race,

48) III. iv. 3-4, III. v. 4-19; "Life of Antonius," p. 243 참조.

49) "Life of Antonius," pp. 240-242 참조.

50) *Ibid.*, p. 246.

51) *Ibid.*, p. 294.

And by a gem of women, to be abused  
 By one that looks on feeders?  
 (III. xiii. 105—109)

라고 말함으로써 Octavia 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존재하지 않음을 암시까지 하고 있다. 극작가가 이렇게 Antony 와 Octavia 의 관계를 소홀하게 취급한 것은 극의 흥미를 Antony 와 Cleopatra 의 관계에 집중시키려는 그의 극적 의도에서 나왔음이 분명하다.

*Plutarch* 의 Antony 는 Armenia 를 정복하고 Alexandria 에 개선한 (34B.C. 가을) 후 Cleopatra 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동양의 여러 국가들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33B.C. 봄), Octavius 는 Antony 의 그런 방약무인적인 행동을 원로원에 보고하고 또 로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그들의 심한 분노를 촉발시켰다. 뒤이어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강경한 서한이 교환되고 그 결과 야기된 반목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갔다. 극에서는 Antony 의 영토 분배의 상황과, 그와 Octavius 사이에 교환된 상호비난의 내용이 충실히 채택되고 있다.<sup>52)</sup> 그러나 Octavius 를 비난하는 Antony 의 대사는 Octavia 의 아테네 출발과 같은 장면에 또 Antony 를 비난하는 Octavius 의 대사는 그녀의 로마 귀환과 같은 장면에 나와 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을 많이 앞당겨 놓은 것이지만 극작가는 이 변용에 의하여 사실을 압축하고 극의 긴장을 고양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성취하고 있다.

*Plutarch* 에 의하면 Octavius 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Antony 는 Cleopatra 와 함께 Ephesus 로 가서 대합대를 규합하였는데 (33~32B.C. 겨울) 반하여 Octavius 는 아직 전쟁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Antony 는 Samos 섬으로 가서 (32B.C. 4월) Cleopatra 와 함께 연회와 환락으로 소일하였고 또 다음에는 아테네로 가서 (32B.C. 겨울) 다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한편 Octavius 는 Antony 에게 대항할 군비를 위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불만을 사게 되어 Antony 에게 이탈리아를 침공할 좋은 구실을 주었는데도 개진을 지연시킴으로써 도리어 Octavius 에게 군비를 확대하고 민심을 진정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충분한 준비를 끝마친 (32B.C. 늦가을) Octavius 는 드디어 Cleopatra 에게 선전포고하고, Antony 의 직권을 박탈하였다.

52) III. iv. 1-10, III. vi. 1-19, 24-37; "Life of Antonius," pp. 242-244 참조.

그리고 Octavius는 Antony 모르게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31B.C. 초) 채빨리 Ionia 해를 건너와서 Toryne를 점령하였다.<sup>53)</sup> 국에서는 상기한 사실(史實) 중 Toryne 점령 만 체택되었을 뿐<sup>54)</sup> 나머지는 전부 생략되었으며 Antony와 Octavius의 전쟁준비는 사실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 Antony는 Octavia의 아테네 출발 직후 대함대의 준비를 완료하며, Octavius는 Antony보다 먼저 전쟁준비를 완료해놓고 있다<sup>55)</sup>.

Actium 해전 직전과 해전 중에 일어난 사건의 취급에 있어서 국작가는 비교적 충실히 *Plutarch*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일부의 사소한 사건들은 생략되었다. 예컨대 Antony는 Actium 해전을 앞두고 자기의 막사와 함대 사이에 있는 해변의 고지를 산보하던 중 배복하고 있던 Octavius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힐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는데<sup>56)</sup> 이 사건은 국에 채택되지 않았다. 또 해전에 있어서 처음 4일 동안은 심한 파도로 전투가 연기되었고, 제 5 일째에야 폭풍이 가라앉아 비로소 양군이 대결하였다(31B.C. 9월 2일). 그리고 전투 중 Antony가 Cleopatra를 뒤따라 도망친 후에도 그의 함대는 심한 풍랑을 무릅쓰고 그날 밤까지 여러 시간 동안 용감히 싸웠고, Canidius 휘하의 육군은 Antony가 다시 돌아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린 후에 끝내 그가 오지 않자 절망하여 Octavius에게 항복하였다<sup>57)</sup>. 그러나 국에서는 폭풍에 의한 전투의 자연, Antony의 해군의 항전과 육군의 충성은 생략되고, Antony의 도망과 함께 사실상 전투는 끝난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면 6개국의 왕에 뛰어어 Canidius도 곧 적군에 항복한다.<sup>58)</sup>

Actium 해전에서부터 Alexandria에서의 최후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국작가는 다시 사실(史實)의 일부를 생략하여 약 10개월의 시일을 단축해놓고 있다. *Plutarch*에 의하면 Antony는 Actium에서 Taenarus岬(岬)까지 후퇴하여 Cleopatra와 합류한 후 Libia로 가서 그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고 자신은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신임했던 Libia 총독의 배신을 알게되자 다시 Alexandria로 가서 Cleopatra와 재회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Pharos 섬의 해변에 지은 집에서 혼

53) "Life of Antonius," pp. 244-252 참조.

54) III. vii. 20-23, 54-57 참조.

55) III. v. 19, III. vi. 57-59 참조.

56) "Life of Antonius," pp. 254-255 참조.

57) *Ibid.*, pp. 255-262.

58) III. x. 25-35 참조.

자 은거하며 Timon of Athens처럼 고독한 생활을 보내었다. 그 후 그는 자기에게 충성하던 왕들과 장병들이 항복한 것을 알게되자 근심과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Cleopatra와의 방탕한 생활을 재개하였다. 한편 Octavius는 Actium 승리 후 아테네로 항해하여 희랍인들과 화평하였다. Antony는 광적인 주연과 유홍으로 나날을 보내면서, 아시아에 채류 중인 Octavius에게 가정교사인 Euphronius를 보내어 군목적인 화해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Octavius는 Thyreus(극에서는 Thidias)를 Cleopatra에게 보내어 그녀와 Antony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횡책하여 Antony의 분노를 샀다. Octavius는 긴급한 국사(國事)로 일단 로마로 귀환하였다가 다음 해에 시리아를 거쳐 이집트 해변으로 침공해왔다(30B.C. 여름),<sup>59)</sup> 극작가는 여러 달에 걸친 Antony의 불행한 생활과 Octavius의 행적을 생략하고, Actium 해전 후 곧 바로 Octavius가 Alexandria 교외까지 진격해 오도록 꾸며놓고, 이 이후에 Euphronius와 Thidias의 임무수행을 도입해놓고 있다.<sup>60)</sup> 극에서 Thidias와 Cleopatra의 회견과 Antony의 그에 대한 분노는 소재에서보다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은 극의 action에 변화를 주고 비극적 최후를 앞두고 있는 Cleopatra와 Antony의 성격을 보다더 뚜렷하게 부각시켜 놓으려는 극적 배려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다.

*Plutarch*의 Antony는 Octavius의 군대가 Alexanderia 교외까지 침공해오자 적의 기병대를 공격하여 격퇴하였다(30B.C. 7월 31일). 이 싸움은 *Plutarch*에서 소규모의 출격(sally)으로 표시되고 그의 승리에는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인데, 극작가는 이것을 전투(battle)로 확대취급함으로써<sup>61)</sup> 최후의 파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Antony의 무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크게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sup>62)</sup>.

이 이후의 극의 action의 전개에 있어서 Shakespeare는 *Plutarch*의 사실(史實)을 매우 충실히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극에서는 Antony의 자살(30B.C. 8월 1일)과 Cleopatra의 자살(30B.C. 8월 말)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루 동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꾸며지고, 또 일

59) "Life of Antonius," pp. 260-272 참조.

60) III. xii, III. xiii. 47-152 참조.

61) IV. vii; "Life of Antonius," p. 272 참조.

62) Cf. A.C. Bradley,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Oxford Lectures on Poetry* (1904; rep. London: Macmillan, 1955), p. 297.

부 사실은 생략되고 있다. *Plutarch*에 의하면 Antony가 죽은 후 Fulvia에게서 난 그의 아들, Antillus는 그의 선생의 배신에 의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고, 또 Cleopatra가 죽은 후 그녀와 Julius Caesar 사이에서 난 Caesarian도 Octavius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Cleopatra는 Antony의 시체를 손수 매장한 후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기 아이들의 뒷처리를 걱정하여 자살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에서와 같이 Octavius가 로마로 개선할 때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갈 것임을 알게 되자, 그녀는 Antony의 무덤에 최후로 참배한 후 자살하였다<sup>63)</sup>. 국에서 상기한 일련의 사건들의 생략은 Antony와 Cleopatra의 죽음 사이에 시일 경과를 허락하지 않은 극적 처리의 당연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의 긴장을 유지하고 관객의 주목을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

## 6

앞에서 우리는 Shakespeare가 North의 *Plutarch*에 입각하여 *Antony and Cleopatra*를 저작하면서 필요할 때는 North의 언어를 차용하고, 또 풀롯의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Plutarch*의 史實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소재에 충실하면서도 극작가의 독창성이 그의 다른 어떤 작품에서보다도 더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은 경탄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But of all perhaps of Shakespeare's plays the most wonderful is *Antony and Cleopatra*. There are scarcely any in which he has followed history more minutely, and yet few even of his own in which he impresses the notion of giant strength so much, perhaps none in which he impresses it more strongly.<sup>64)</sup>

그는 국의 action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도 새로이 첨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의 전부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Plutarch*를 노예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며, 비록 중요사건에 있어서는 극적으로 부적당한 재료까지도 변용 없이 채택하고 그 순서까지도 추종하였지만, 국이 필요로 하는 집중을 위하여 여러 곳

63) "Life of Antonius," pp. 285-291 참조.

64) Hawkes, *op. cit.*, p. 269.

에서 서로 격리된 사건들을 함께 묶거나 압축하여 극의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 놓았다. Shakespeare는 *Julius Caesar*에서 2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일경과를 동반한 5일간의 극적 사건으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Antony and Cleopatra*에서는 취급 대상이 된 역사적 시간이 10년에 걸쳐 있고 사건도 그만큼 복잡다단하므로 극작가는 더 어려운 일에 직면하였음이 명백하며, MacCallum은 이 극에서는 *Julius Caesar*에서와 같은 조직적인 시간 압축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5)</sup>. 그러나 P.A. Daniel은 치밀한 분석에 의하여, 극의 여러 곳에서 시일 경과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무대 위에 실제로 상연되는 시간 만으로 보면 12일간의 사건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up>66)</sup>. 그가 분석한 극적 시간에 역사적 史實의 시간을 함께 대비시켜 봄으로써 우리는 극작가가 가한 시간 압축의 양상을 보다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극적 시간	극의 막장	역사적 시간
제 1 일	I. i-iii	40 B.C.
제 2 일	I. v-II. iii	"
제 3 일	II. iv	"
제 4 일	II. v-vii [III. iii]	39 B.C.
제 5 일	III. i-ii	39~38 B.C.
제 6 일	III. iv-v	37~36 B.C.
제 7 일	III. vi	35~33 B.C.
제 8 일	III. vii	33~31 B.C.
제 9 일	III. viii-x	31 B.C.
제 10일	III. xi-IV. iii	31~30 B.C.
제 11일	IV. iv-ix	30 B.C.
제 12일	IV. x-V. ii	"

극적 시간의 제 1, 3, 4, 5, 6, 7일 다음에는 시일의 경과가 개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장인물들(Antony, Octavia, Octavius)이 Alexandria—로마—Misenum—로마—아테네—Actium—Alexandria로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극적 시간에 이 시일경과까지를 합하면 Bradley가

65) MacCallum, *op. cit.*, p. 332 참조.

66) William J. Rolfe, ed., *Antony and Cleopatra* (New York: Harper & Brothers, 1881), pp. 217-218 참조.

말하고 있듯이<sup>67)</sup> Shakespeare는 10년간에 걸친 이야기의 시간을 그 5분지 1로 단축해 놓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Shakespeare는 극적 필요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중요한 사건을 그 순서까지 변경하지 않고 거의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다사다난했던 10년간의 정치적 정세를 개관하여 역사적 사건 진행의 주류에 있어서는 *Plutarch*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세목의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곳에서 재정돈과 재결합의 과정을 거치고 특히 국의 중간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극도로 밀접시키고 있으며, 중요치 않은 사건의 다수를 생략하고 또 그 순서를 변경하는 수법에 의하여 *Plutarch*의 복잡한 이야기를 현저하게 간결하게 하면서 동시에 史實에 독창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 Shakespeare의 탁월한 극작기교는 그가 이 국에 많은 변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우리만치 史實에 충실한 인상을 주며, 그러면서도 역사를 예술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깊이와 생기를 불어넣어 놓게 하고 있다. 특히 주어진 역사적 기록에 충실하면서도 이 극을 역사극의 수준을 초월하는 고도의 비극으로 승화시켜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국의 홍미를 Antony와 Cleopatra의 사랑에 집중시키고 정치적 사건을 이 주제에 대한 배경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작가는 Antony의 최후 10년의 생애 중 그 첫 해와 마지막 해를 충실하게 재생한 반면 중간 부분은 대폭적으로 생략내지 압축하였는데, 이 기간은 Antony와 Cleopatra가 서로 떨어져 있은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lutarch*에는 무장으로서의 Antony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고 있지마는 Shakespeare는 거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Parthia 원정을 생략하고, Antony의 Octavia에 대한 애정과 그녀의 헌신과 결개를 무시하였다. 또 그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Cleopatra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극에 등장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극작가는 Antony와 Cleopatra의 사랑과 그것이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에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Shakespeare가 가한 가장 중요한 변용은, 로마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의 사랑을 *Plutarch*와는 달리 타락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고귀한 사랑으로

---

67) Bradley, *op. cit.*, p. 285 참조.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극작가이며 예술가인 Shakespeare 는, 전기 작가이며 도덕가인 *Plutarch* 와는 전혀 상위한 입장에 입각하여 그들의 사랑에 타락이나 불행을 초월하는 깊이와 아름다움을 부여해 놓았으며, 이러한 변용이 없었더라면 이 극은 결코 고도의 비극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Plutarch* 는 Antony 의 성격의 장점 속에 혼합되어 있는 위험한 성향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Antonius being thus inclined, the last and extremest mischief of all other (to wit, the love of Cleopatra) lighted on him, who did waken and stir up many vices yet hidden in him, and were never seen to any; and, if any spark of goodness or hope of rising were left him, Cleopatra quenched it straight and made it worse than before.<sup>68)</sup>

다고 말하고, 바로 뒤이어 Cydnus 강에서의 주인공들의 첫 만남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Plutarch*의 Cleopatra 는 매혹적이고 세련된 여자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Antony 를 사로잡은 사랑은 완전히 파멸을 가져 올 만한 것이었으며, *Plutarch* 는 그의 이러한 견해를 시종 견지하고 있다. Antony 에게는 이미 처자가 있었고 Cleopatra 도 남성 편력을 거듭해 왔으므로 이러한 두 남녀의 사랑이 도덕가인 *Plutarch*에게 사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은 오히려 당연하였으며, 그들이 만난 이후의 Antonius 전기는 사실상 그러한 그의 관점을 확인하는 서술로 시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Shakespeare 는 그의 주인공에게 현실적 도덕기준을 초월할만큼 호탕한 대규모의 사랑을 부여하고 Cleopatra 의 한 방울의 눈물, 한번의 키스는 그의 파멸보다 더 값진 것이 되게 하고 있다. 또 그의 여주인공에게도 *Plutarch*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불가사의한 매력과 감정적 위대성이 부여되고 있다. 극에서 그녀는 무한한 변화 속에 보여지고 너무나 사랑의 기교를 전개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진실성을 의심케 하기도 하지만 Antony 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 의하여 그 성격에 통일이 주어지고 있다. 그녀는 극작가가 창조한 모든 여성 중에서 으뜸가는 걸작이라 부르기에 속하며, 그녀처럼 변화무쌍한 성격을 그토록 그럴듯하게 창조하여 Antony 의 그녀에 대한 열정에 우리도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Shakespeare 의 성격묘사의 기교는 경탄을 금할

68) "Life of Antonius," p. 199.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리하여 극의 주인공들은 서로를 위하여 만들어 진듯이 그들의 매력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관능적이면서도 육체와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로 승화하는 송고한 것이 되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을 결합시킨 열정에 존경까지는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초개처럼 내던질 만큼 고도로 승화된 그들의 사랑은 우리의 동정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극은 비극적 주제의 전개나 주인공들의 성격적 갈등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四大 비극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이 극에서 영웅이며 여왕인 주인공들의 대규모적인 작열하는 들판 애욕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로마 제국의 권력투쟁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시키고 있다. 또 그는 이 주제에 알맞는

a romanic richness of style and exuberance of form<sup>69)</sup>

을 채택하고 극의 도처에 나오는 아름다운 극시에 의하여 사랑의 개가로 이 극을 충만케 하고 있다. 이리하여 Shakespeare는 Plutarch의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독창적인 예술적 해석을 가미하여, 역사극의 수준을 초월한,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비극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

69) Dover Wilson, *op. cit.*, p. xxi.

